

민족의 영광과 행운으로 빛나는 10년

청년 강국을 우뚝 세워 주시어



공화국은 청년들이 강해 더욱 강한 불패의 사회주의 나라이다. 세상에 나라는 많아도 청년강국으로 자랑스럽게 불리는 나라는 오직 하나 조선이다. 온 나라의 청년들이 령도자와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사회주의건설의 맨 앞장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 위훈을 창조

들이 강하기때문에 우리 혁명은 필승불패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시작되던 2012년에도 그이께서는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강성할 래일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이라는 크나큰 믿음은 청년들에게 안겨주시었다. 제국주의침략세력으로부터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수호하시려고 밀고 힘찬 전진길을 헤쳐가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뜻깊은 청년절을 맞으며 평양에서 경축행사를 성대히 진행하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고 친히 축하문까지 보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다. 당의 사상과 의지로 숨쉬며 당의 두리에 성벽을 이루고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나아가는 계승자들의 대부대가 있기에 우리는 두려움없이 없고 못낼 일이 없으며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이라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청년들에 대한 대대같은 사랑과 친금같은 믿음은 이렇듯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해에 장엄히 아로새겨졌다. 청년들에 대한 경애하는 그의 격려와 미더움이 담겨진 부분들은 또 그 열매이다. 《우리 당의 민중적인 척후대, 익추부대》, 《청년대군》, 《우리 시대의 청년애국자》, 《총진군대요의 척후대》, 《전도양양한 젊은 주력부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청년들의 대화합들도 성대히 마련해주시고 청년중시가 공화국의 국풍으로, 조국과 민족의 미래와 직결된 국사중의 국사로 내세워지도록 고귀한 지침들을 환히 밝혀 주시었으며 청년들을 사랑의 한몸에 안으시고 대를 이어 길이 전할 영광의 기념사진도 함께 찍어주신다. 지난 4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청년동맹 제10차 대회에 역사적사건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한 역사적진군에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의 위력을 힘있게 떨치라》를 보내주시었다. 경애하는 그의이께서는 서한에서 이번 대회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의 명칭을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으로 개칭할데 대한 중대한 결정이 채택되었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이라는 새로운 명칭에는 우리 혁명의 현 단계에서 청년운동의 성격과 임무가 직선적으로 명백히 담겨져있고 우리 시대 청년들의 리상과 품모가 집약되어있으며 청년조직으로서의 고유한 맛도 잘 살아난다고 밝혀주시었다. 백두에서 개척된 조선청년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더욱 즐기치게 될것이라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에 접한

해가 공화국을 세상이사람들은 부러워하고있다. 청년강국의 이 자랑찬 모습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여 이 땅우에 더욱 활짝 펼쳐진 특기할 현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나라는 청년강국이라고, 우리 혁명의 불패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청년

탁월한 수령을 모신 영광과 행복을 절감하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의하여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영예를 지닌 나는 몸은 비록 해외에 있어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장에서 그이를 직접 모신 자제로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받아들았다. 오늘 전세계 인류가 세계적인 제양과 결치는 정치경제적위기에 모대기고있을 때 인민대중제일주의리념을 기본정치방식으로 하는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불멸의 대강을 펼쳐 주시고 그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우러르면서 나는 불세출의

통일운동으로 힘차게 불러일으키는 투쟁의 기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시정연설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투쟁강령에 따라 중첩되는 모든 도전과 불리한 환경과 난관을 물리치며 주체적성과 내적동력을 증대시켜 위대한 새 승리를 이룩해나가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있는 격변의 시기에 사회주의건설의 새 승리를 확고히 앞당겨올수 있는 명확한 진로를 밝힌 불멸의 대강이며 필승의 보검이다. 특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최근년간의 연 불만하고 엄중한 경제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현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정세에 대하여 개발평가하시고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

승리의 신념을 안겨주는 시정연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시정연설에 접하고보니 조국의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사실 일기 서방언론들이 조국에서 세계적인 보건의 위기와 련이어 들이닥친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떠들 때마다 저는 걱정도 없지 않았습다. 그러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시정연설을 접하고 그 모든 우려가 다 사라졌습니다. 원수님께서서는 전체 인민들이 공화국에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다고 하시면서 하늘 같은 이 믿음에 보답하는것이 이 나라 수천만 공민들앞에 지닌 가장 신성하고 영광스러운 의무라고 하셨는데 이처럼 인민을 존중하시고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인민의 령도자를 모시고있는한 이 세상에 무서울것이 없다고 봅니다. 재중동포 심영실

제할바를 똑똑히 해야 한다... 우리 조국이 나아가길 환히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해외에서 접하면서 조선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긍지감을 느끼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시정연설에서 조국의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대외관계를 비롯한 각 부문에서 일어나고있는 긍정적변화들에 대하여 개발분석하시면서 현시기 공화국정부앞에 나서는 정책적과업들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주시었습니다. 원수님께서 가르치신대로만 한다면 조국은 또 한차례 눈부신 도약을 이룩하게 될것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우리 조국은 반드시 고난을 이겨내고 강국건설대업을 이룩할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재중동포 리기석

재중동포 심영실

재중동포 리기석

크나큰 응지와 불변의 의지가 어려있는 강령적지침은 공화국청년들의 가슴마다에 또 다시 세찬 불을 지펴주었다. 지난 8월 조국의 부름앞에 무한히 충실하며 미래를 위해 투신하는것을 인생의 더없는 영예로, 자랑으로 여기는 우리 청년들의 사상정신상태는 매우 훌륭하다고 하시면서 조국과 인민이 자랑하는 영웅청년으로 이름떨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며 청년절경축행사참가자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온 나라 청년들은 원수님의 혁명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당의 별동대, 청년애국자의 영예를 빛내여갈 굳은 맹세를 다졌다. 어디 그뿐인가. 일시 잘못된 길에 들어섰던 청년들을 어머니의 손길,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끌어주고 결혼상까지 차려준 한 당일군의 소원을 보고받으시고 정말 고맙다고 한자한자 써 주신 친필글말, 《처녀어머니》의 소행이 너무나 기특하고 대견하시어 높이 평가하시며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내세워주시는 이야기, 백두대지에 청춘대기넘비로 솟구쳐오른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의 청춘대기우를 거니시며 백두의 칼바람에 뜻을 닦고 우리 당이 정한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쳐내달리는 백



두청춘들의 영웅적기상과 위훈이라고 격정에 넘쳐 시를 읊으시듯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에서 인민들은 청년들의 위대한 아버지의 모습을 가슴뜨겁게 절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와 같은 사랑과 믿음이 있어 공화국의 청년들은 청년강국의 주인공으로 자기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치고있다. 세상을 둘러보면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와 황금만능주의, 부패타락한 생활풍조에 물젖은 수많은 청년들이 사회의 우환거리로 되어 사상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파멸의 나락에 굴러떨어지고있지만 이 땅에서는 동지를 위



한 생을 빛내고있는것이다. 이제 공화국의 청년들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새로운 5개년계획의 첫째 과업수행을 위한 보람찬 진군길에서 청춘의 기상과 위력을 남김없이 떨치며 그 이름도 빛나는 청년강국의 위용을 더욱 높이 떨쳐갈것이다. 철세의 위인을 모시어 청년강국의 위상을 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백명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시험발사 진행... 9월 28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시험발사 진행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시험발사 진행



새로 개발한 반항공 미사일 시험발사 진행



9월 30일 새로 개발한 반항공미사일의 종합적전투성과 함께 발사대, 탐지기, 전투종합지휘차의 운용실용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험발사 진행